

# 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점점 힘이 듭니다.”

- 고통도 하지 않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는 장대한(가명)님의 이야기 -

장대한(가명)님은 11살 어린 나이에 심장마비로 아버지를 여의고,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.

어머니는 5년 전 재개발로 가게가 편입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갑자기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는 증상이 심해져 자꾸만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서 한 순간도 어머니 곁을 떠날 수 가 없습니다.

장대한님도 유전적 요인으로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.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된 적도 몇 번 있습니다. 심장정지와 뇌졸중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도 받아야 해서 다니던 컴퓨터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.

아픈 상황에서 별다른 소득도 없이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점점 더 힘이 듭니다. 형제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

이 모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장대한님의 의료비로 지원되며  
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 
경제적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